

## <Au fond de: 내 깊은 곳 >

2025.10.10 - 11.05

Gallery Kiche, Seoul

기체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남, 김명주 작가의 <<Au fond de : 내 깊은 곳>>전을 개최한다. 두 작가는 작업에서 인물을 다루고 있다. 그 인물 또는 신체는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벗은 몸의 무표정한 인물(혹은 군상)이거나 피부가 녹아 내린 얼굴, 몸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장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의식적으로 배제돼 있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인물'을 그 다루는 매체나, 자신의 특징적인 기법을 강조해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면 깊은 곳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에 주목한다.

김명주의 살갗이 녹아 내린 얼굴, 핏기 어린 파편으로 허공을 떠다니는 신체는 그녀 내면에 비친 '물그림자'다. 그것은 복합적인 관계에 얹힌 한 인간으로서 마주하게 된 상실, 고립의 경험이 마음 깊은 곳에 남긴 자연스런 정서를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의 제작 방식은 외견상 도자 조형의 일반적인 작업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흙을 매만져 얼굴, 신체, 식물 등의 형태를 만들고 그늘에 말린 후 유약을 발라 전기가마에 넣고 원하는 형태와 미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차례 구워 낸다. 하지만 작가의 작업 방식은 표면이 매끄러운 완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1천도 이상의 열기에 닿아 흐물흐물 흘러내린 불완전한 형태를 집요한 반복의 과정으로써 싓는다.

두상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의인화된 식물들 역시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 태도를 드러낸다. 거기서는 유약함과 강인함, 욕망과 순수, 환희의 동상과 냉소가 구분 없이 교차된다. 지난간 '사건들'은 소멸되지 않고 파동을 일으켜 복합적인 인상, 감각들을 마음 속에 내밀화 한다. 따라서 눈에 비친 물의 투명도는 같지만 그 밀도는 까마득한 물 속처럼 깊고 무겁다. 김명주는 마치 물안경 쓴 맨호흡의 해녀가 명치 아래로 두려움을 누르며 물 밑으로 달려들듯 작업실에서 '지난한 반복'을 이어간다. 그런 맥락에서 작가의 작업 행위는 과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곳 웅크린 얼굴을 맨눈으로 또렷하게 마주하려는 의식에 가깝다.

그리고 도조 작업과 함께 틈틈이 병행하고 있는 드로잉, 회화는 같은 감정, 정서라도 그 적용하는 매체, 재료, 기법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것에 집중한다. 특히 과슈 드로잉들은 작가에게 짧지 않은 작업 시간이 물리적으로 요구되는 도조, 회화 작업과 달리 보다 감정을 누르거나 응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신작 <생각에 잠긴 두상 Tête pensée XVII>은 작가가 겪은 상실의 고통이 오롯이 반영돼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 투명한 유리구슬을 올려놓은 채 피부가 벗겨지고, 녹아 흘러내린다. 그렇지만 눈동자는 고통에 겨워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눈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죽음'으로 흘어지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 무릎을 감싸고 웅크린 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세계가 한 데 겹쳐 있다.

# KICHE

김명주(b.1973)는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를 졸업하고 벨기에 라 캄브르 국립고등시각예술학교 도자, 공간과 시각, 조형예술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쿤스트포룸 졸로투른 (2024, 졸로투른), P21(2024, 서울), 아트비앤(2023, 서울), 호리아트 스페이스 아이프라운지(2023, 서울), 살 바스 드 라 크립트 로스트로포비치(2022, 보베), 바지유 아트 갤러리(2022, 파리), 쿤스트포룸 졸로투른(2022, 졸로투른),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2019, 대전), 갤러리 맘(2019, 2018, 서울),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큐빅하우스(2017, 김해)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기체(2025, 서울), 르 델타 (2025, 나무르), 이응노미술관(2025, 대전), 뉴스프링프로젝트(2025, 서울), 쿤스트포룸 졸로투른(2024, 졸로투른), 쾨닉 서울(2024, 서울), 테르 딜프트 문화원(2024, 보르네), 쿤스트포룸 졸로투른(2024, 졸로투른), 르 폭트 클로슈(2023, 로쉬보댕), 갤러리 테라 비바(2023, 쌍-껑땅 라 뽀뜨히), 쿤스트포룸 졸로투른(2023, 졸로투른), 부산현대미술관(2022, 부산), 아리아나 미술관(2022, 제네바), 라 본 도자센터(2021, 라 본), 플레이스막2(2021, 서울), 바지유 아트 갤러리(2021, 파리), 인천 서구문화재단 (2021, 인천), 바지유 아트 갤러리(2020, 파리) 등이 있다. 2014년 파리 현대미술 도예 살롱전 심사위원 대상, 2023년 아리아나 뮤지엄상, 2009년 테랄라 유럽 도예 페스티벌 공모전 은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스위스 제네바 아리아나 박물관, 중국 베이징 귀중 도자기 미술관, 일본 시가라키 현대 도자기 미술관, 핀란드 포시오 북극 세라믹 센터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